연중 제 12 주일
(남북통일기원미사)
제1독서 : 예레 20, 10-13
제2독서 : 로마 5, 12-15
복 음 : 마태 10, 26-33

숲정이

이 주일의 화답송
주님, 당신의
넓으신 자비로
저를 도우소서.

강론

오늘 나의 기도

김영태 신부/ 성심 여중

먹고 살기가 참 힘들어졌다. IMF인지 뭔지가 우리를 더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 먹고살기가 힘든 사람은 다른 일을 생각할 수 가 없다. 우선 먹을 것을 해결해야 하니까 말이다. 우선 내가 죽겠는데 다른 일이 눈에 들어 올 리가 없다. 참 세상이 많이 삭막해졌다. 살면 살수록 사는 일에 더 신경을 써야하니 당연한 결과 아니겠는가? '이럴 때일수록 서로 도와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세상물정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먹고 살만한 사람이다. 배고파 봐라. 다른데 눈길을 줄 겨를이 있나.

요즘 북한 군함이 우리 영해를 침범한다고 하는데, 그런 뉴스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고 아이들에게 물었다. 아이들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싸가지가 없다.'는 느낌이 든다고 답한다. 어째서 그런 느낌이 드느냐고 물었더니 '남한도 어려운 때에 쌀도 대주고, 소도 보내주고, 어쨌든 도와주었더니 엉뚱한 짓만 한다.'라고 답한다. 그러면 통일은 되어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3분의 2정도가 통일이 안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한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통일이 되면 서로가 살기 힘들어지니까(솔직히 말하자면 남한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지니까)라고 답한다. 그러면 통일보다 우리가 잘 사는게 먼저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답한다.

우리 아이들만 이런 생각을 할까? 언젠가 술자리에서 결식학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떤 분이 '북한보다도 우리 결식학생들의 문제, 실업자문제가 더 우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렇게 해서 대화는 남북문제로 자연스럽게 주제가 바뀌었는데, 대부분의 대화 내용은 북한을 도와주어야 하지만, 지금 당장 남한 문제가 발등의 불이니 그것부터 해결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이었다. 그럼 결식학생을 어떻게 돕고 있느냐고 물으니 요즘 자신도 살기가 힘들단다. 그래서 마음은 있지만 못하고 있단다. 얼마나 잘 살아야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우리가 다른 이들 사는 것도 돌아볼 여유를 가지게 될까?

오늘 교회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하여 기도하자고 권한다. 그런데 오늘 나는 이렇게 기도하려고 한다. '주님! 우리 모두가 먹고사는 것을 걱정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돈도 많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넉넉하게, 아니 엄청나게 많이 주셔서 자신만을 돌아볼 수 없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결식학생도, 통일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먹고사는 것이 힘들어서 민족이고 통일이고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화해? 일치? 좋은 말이긴 하지만 그리고 언젠가는 해야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말할때가 아닙니다.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주님!

여 명

성공한 정부

모 보 일(즈가리야)

'옷로비 투명하게 조사,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

'마녀사냥식 안된다', '김법무 유임 결정'

'김법무 퇴진 결의', '김태정 법무 해임'

'국조권범위 충돌', '서해 남북 초긴장 대치'

이들이 1일부터 13일까지 중앙일간지에 실린 1면 머릿기사 제목 가운데 일부다. 조용한 날이 하루도 없다. 고관 부인들의 옷로비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믿지 않고 대통령이 여론에 귀를 막고 있다는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대통령은 검찰이 조폐공사 파업을 유도 했다는 공안부장의 발언이 터지자 이를 긴급 진화하기 위해 그토록 끌어 안았던 김태정 법무장관을 취임 보름만에 해임했다. 그러나 진상규명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의 불신과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급기야 국정조사권이 발동 됐지만 조사대상 선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놓고 의견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여러날 삐그덕 거리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올지 의문이다.

이런 판에 다이옥신 파동으로 국민식탁이 위협을 받고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을 침범, 우리 해군과 '뱃머리 싸움'을 벌여 "이러다가 …"하는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민들은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에 많은 기대를 걸었었다.

국가 부도의 위기에 서 있던 나라를 취임 1년 반만에 환란을 극복,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김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한국의 성공은 김대중대통령의 성공" "개혁의 전사"라는 등 국내보다 외국에서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박수를 보내지만 정리해고와 감봉의 고통을 참으며 산업현장을 지켜온 국민들의 동참이 없었다면 가능한 일이 었을까.

요즘 국정은 어떤가. 30년 동안 계속 되고 있는 낡은 레코드를 틀어 놓은 것 같다는 여론이다. 사람도 그 사람, 하는 짓거리도 옛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관.재계의 부정 부패가 여전하다. 국민 따로 정부 따로다.

'카이사르의 아내'라는 말이 있다.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부정을 저질렀다는 아내에 대한 소문이 있자 "의심을 받는 것만으로도 아내의 자격을 잃었다"며 내쫓았다는 일화다.

서민들은 높은 분들의 기침 한번에 독감을 앓는다. 허리띠를 더 이상 졸라맬 여력도 없다.경쟁도 싫고, 시위도 이젠 지겹다.

버릴 것은 버리고 추스릴 것만 추스려야 한다. 대형 사건이 터져도 책임지고 물러나는 사람이 없고 우물쭈물 한다면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경조사 축·조의금 접수 금지'를 비롯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이 발표됐다. 공직기강을 쇄신하기 위한 대책이다. 그 내용을 보면 고관들에게 서민들처럼 살라는 것인데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런지 ….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눈을 속이는 '깜짝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하는 '성공한 정부'가 되도록 거듭나기 바란다.

숲정이 산책

"남북한의 화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해설(5)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456-570)

김선태 신부/ 가톨릭 신학원 교리부

대화는 말을 서로 주고 받는 행위이다. 때문에 대화를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들어야 한다.

하느님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은 먼저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잘 듣지 않으면 제대로 응답할 수 없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는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들었다고 해도 건성으로 들었던 역사이다. 때문에 하느님과 제대로 대화할 수 없는 역사였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당신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인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 마침내 말씀이신 당신 아들을 보내 주셨다. 이 구세주의 강생사건을 신경은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라고 고백한다. 그러나 이 고백은 인간이 하느님과 대화하기 위하여 어떻게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지 그 모범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를 하나씩 살펴보자.

'잉태되어", 하느님 아들을 가리키는 이 말의 시제는 수동태이다. 곰곰이 생각하면, 이 수동태는 예수의 존재 전체를 가리킨다. 공생활 중에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행동은 당신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과 행동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어떻게 말하라고 친히 명령하신 대로 말하였다"(요한 12, 49). 그러니까 예수의 존재는 성부의 뜻을 남김없이 완성하시는 존재자체이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먼저 당신을 성부께 온전히 내어 맡기신다. 이를 초대교회는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필립 2, 8)라고 고백하였다. 순종(ob-audiere)이란 성부께서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듣고 따르는 복종이다. 따라서 하느님의 아들은 인간이 하느님과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그 모범을 먼저 보이신다(교리서 459 참조).

"성령으로 인하여", 강생하신 성자가 어떻게 성부와 대화하실 수 있었을까? 예수께서 인간존재로서 어떻게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었을까? 성령을 통해서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의 공동 영이시기 때문이다(교리서 245항 참조). 복음서는 예수께서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아 성령에 의해 사셨다고 증언한다. 그러나 성령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대로 일러주시는"(요한 16, 13) 분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성부의 뜻을 성자에게 전하는 성부의 영이시며, 동시에 그 성부의 뜻을 남김없이 받아들이는 성자의 영이시다. 따라서 성부와 성자는 같은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로 대화하시며, 또한 하나되신다(요한 10, 38 참조). 따라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되셨다'는 고백은 강생사건이 삼위이신 하느님의 공동결정에 의해 비롯된 사건임을 말하고 있다(교리서 258 참조). 나아가 이 고백은 인간이 하느님과 올바로 대화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사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없으며 또한 하느님께 기도드릴 수 없다.

"동정 마리아께 나시고", 신경은 강생사건의 주도권이 삼위일체 하느님에게 있다고 말한다음,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인간의 협력자인 마리아를 언급한다. 마리아를 구태여 '동정 마리아로 표기했던 것은 본래 마리아의 동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강생하신 분이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교리서 496항 참조). 마리아가 삼위일체 하느님의 구원계획에 협력하여 성자를 낳을 수 있었던 이유는 마리아의 순종 때문이다. 성서가 증언하듯이, 마리아는 항상 말씀을 곰곰이, 새겨듣는 여인이었으며,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복종하는"(로마 1,5) 여인이었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가 1,38: 교리서 494 참조). 교회는 하느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신 마리아를 가리며, 갖은 칭호로 공경한다(교리서 495-501 참조).

이처럼 신경의 제3절은 인간과의 대화를 위한 성자의 강생사건을 언급하면서 그 대화를 위한 두 가지 모범으로 하느님(성자)의 순종과 인간(마리아)의 순종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느님과 대화하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그래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느님께 우리의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주님계시기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최고예요.

항상 밝고 생기있게 살아가는 황병순(릿다) 자매님, 시간나는대로 스님의 바랑 같은 가방을 메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다니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눈다. 회갑을 바라보는 나이 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활기있게 살아가는 릿다자매님을 만나보았다.

▶ 항상 메고 다니시는 가방속이 궁금한데요?

저는 화장품 방문판매를 합니다. 가정형편 때문에 하는 일은 아니구요…. 1996년 쯤에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님들께서 현재 동국해성 아파트 자리에 있는 숲정이 성지 어린이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모금을 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계속하고 있어요.

▶ 모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회교정사목후원회, 성소후원회, 그리고 부모없이 살아가는 소년소녀 가장을 몇 돌보아 주고 있습니다. 그다지 많은 힘이 되지는 못해요.

▶ 작년에 전동성당의 선교왕으로 뽑히셨지요?

부끄럽습니다. 10명의 예비신자를 입교시켜 선교왕의 영광을 받았어요. 제가 화장품 외판을 계속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외교인들을 만나 자연스럽게 선교할 수 있다는 이유도 있어요.

▶ 틈나는대로 성당 청소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당 청소를 레지오 단원들이 활동으로 하고 있지만 18년전에는 본당수녀님께서 혼자서 수고하셨어요. 그모습이 힘들어 보여서 도와드린 것이 시작이예요. 마음 속으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제대도 닦고 성당 구석구석을 닦는 것이 참 좋아요. 자매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시는 성소에서 성작을 닦고 성작수건을 빨고, 화장실을 청소하며 많은 기쁨을 느낍니다.

▶ 외부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가족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저처럼 가정에서 이해받는 사람이 드물겁니다. 애들 아빠가(김일부 베드로, 레지아 부단장) 아이들에게 엄마가 좋은일 하고 다닐 수 있도록 도와 주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릴적부터 제가 외출하면 '집걱정 하지 마시고 몸조심 하세요' 하면서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건강도 주시고 남편과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니까 할 수 있는 거지요. 늘 가족들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항상 밝게 사시는 비결이 무엇인지요?

제 성격이 원래 사람을 좋아하고 나쁜일을 마음 속에 오래 담아두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성당을 다니기 전에도 이웃들과 재미있고 기쁘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 예전의 기쁨은 지금의 기쁨과 비할바가 아니예요. 이 행복을 하느님 모르는 이웃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서 부지런히 다니지요.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성소모임
일시 : 6월27일 오후 2시-5시
(매월 넷째주일)
장소 : 오순절평화의수녀회
삼랑진본원
문의 : (0527) 352-4241
성령세미나를 참여한 분들로서 더욱 성장된 성령안의 생활을 갈망하시는 고졸이상의 미혼여성 환영합니다.

전 일 관 광
신 혼 여 행 전 문
금 강 산 관광
관광버스 대절
조 선(안토니오)
☎ (0652) 288-6666

제일장문외과
(구. 제일학문외과)
대장·항문 전문병원, (치질, 치루, 치열, 항문주위 농양, 변비), 유방 클리닉
의학박사 최 성 양(루가)
전 문 의 안 해 선
익산시청 ↔ 북부시장 사이
☎ (0653) 858-7575, 7585

자동차보험 전문회사
(주) 에이프러스원 전북사업본부
(총괄법인 대리점)
본부장 이 성 기(세베리노)
정 성 옥(리드비나)
★ 영업소 및 사용인 모집
천주교 서신 신협 3층
☎ (0652) 251-3930~2

1999년 성부의 해 -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가는 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드리는 첫째 청원은 하느님의 이름에 관한 청원이다. 곧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기를' 청원하는 것이다. 조금만 살펴보면 왜 이와 같은 청원을 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성서의 문화 배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름은 결코 순전히 호칭으로만 쓰이지 않는다. 이름의 부여와 변경은 주체의 변화를 가리키며, 사명 수행을 위한 자격과 새로 부여하는 능력을 가리키다.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표현하며, 그 사람 자신이 지닌 배경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기를 아버지께 청원하면서 우리는 바로 하느님 자신이 거룩히 빛나시기를 청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거룩하게 하다"[神聖化]는 말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 용어가 속하는 의미군은 엄격히 신성을 가리킨다. 곧 하느님께만 해당되는 하느님 고유의 것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하느님과 관련된 신성화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순전히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장난의 악순환을 막아 보자고, "거룩하게 하다" 곧 신성화하다는 말의 해석에 대안이 제시되었다. 이 말을 하느님께 적용할 수 있는 존재론적인 특성화의 뜻이 아니라 인식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곧 아버지 자신이 거룩하신 분으로 인식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매우 널리 퍼져 있는 해석이다. 에제키엘 예언자는 "너희는 내 이름을 뭇 민족에게 멸시받게 했지만 나는 뭇 민족에게 멸시받은 나의 위대한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 뭇 민족이 보는 앞에서 너희 안에 내가 거룩하게 되면, 그들은 내가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에제 36, 23)고 말한다.

특별히 마태오 복음서와 구약성서 전체를 밀접히 이어 주는 에제키엘 예언서의 이 대목은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성화는 실제적인 것이며, 이 병행 구절에서, 처음에는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이름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는 하느님 자신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 거룩함과 이 신성에 대한 더욱더 폭넓은 참여를 통하여 백성에게도 거룩함이 주어진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하느님의 거룩하심이 실현되어 커다란 그리스도교 가족 안에 들기를 우리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청원하는 것이다.

기쁨과 은총의 대희년 2000년 대희년까지 188일 남았습니다.

축! 성전봉헌식
화산동 성당

일시 : 7월 3일(토)

오전 10시 30분

주례 : 이병호 주교님

결혼상담소
좋은 날
초혼, 재혼, 인연을 맺어드립니다.
상담 : 유 춘 주(세라피나)
전동 시외버스터미널 옆
삼성전자 2층
☎ 287-3325, 288-3325
(휴) 016-607-3326

나이키 축구용품 전문점
축구화, 유니폼, 츄리닝 단체전문
싸카 스포츠 (경기장 사거리)
박 경 선(요 셉)
강 인 숙(플로라)
☎ (0652) 251-7772

가람종합사무기
복사기, FAX, 컴퓨터 프린터를 무료점검해드립니다
복사용지, 토너, 프린터 소모품일체
유 이 근(마르첼리노)
익산시 신동 국민은행 옆
☎ (0653) 842-6985/ 6658
011-680-1393

영창피아노 전주중앙점
· 장, 단기 할부판매
· 중고보상 판매
· 조율 및 운반전문
전 상 진(베드로)
유 명 숙(요안나)
☎ (0652) 252-0103~4
284-6085/284-9989
(구. 서중로타리 동원증권 맞은편)

김회민 정형외과
가톨릭 공제조합 지정병원
김 회 민(루가)
남전주 전화국 앞
(구 영광주유소 자리)
☎ 226-7600~1

백마익스프레스
· 포장이사 · 일반이사 · 용달사업부
· 고층사다리보유 · 24시간 인부대기
· 반포장 · 1톤, 2.5톤, 3톤 차량보유
편리하고 안전한 이사 백마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정 환(마 르 코)
인 정 미(프란치스카)
☎ (0652) 253-2452 H·P 019-678-2486
무료전화 080-050-2482

디스크 요통 치료기
서울 백병원 인제병원 2년 임상실험 결과 착용후 3일이내 82%이상 호전
기존 허리벨트와는 전혀 다른 정형용 견인장치 「디스크 닥터」
김 종 진(스테파노)
다가동 복자성당 옆
창의 메디칼 ☎ (0652) 282-1610~1

토탈 패션
I M A+
영캐쥬얼, 보세의류 전문 패션몰
김 문 식(베드로)
심 점 순(데레사)
객사뒤 K.F.C 앞
☎ (0652) 231-7853

사 목 단 상

봉헌의 삶

박세실리아/ 행복한 가정운동

월요일, 새벽미사를 거행하시는 노사제의 까칠하고 핏기 없는 모습이 갓 서품받은 새사제의 싱그러운 젊음과 유난히 대비되었다. 청춘을 다 바쳐 봉헌의 삶을 사신 그분의 지난날을 보는 것 같아 마음속에 찡한 아픔을 느꼈다. 그리고 지난 세월을 우리 신자들을 위해 남모르는 희생과 사랑을 바쳐 봉사하신 삶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오래도록 머물러 있었다. 신부님이 걸어오신 봉헌의 삶을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의 지난날을 돌아보게 되었다.

어느새 행복한 가정운동을 하면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을 두번씩이나 보냈다. 그동안 괴롭고 슬프고 좌절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자신이 오히려 그분들을 통하여 위안을 받은 적도 많았다.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며 함께 기도하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남다른 십자가의 삶을 내게 주신 하느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느님께 더 큰 믿음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기에 부끄러움도 이기고 용기있게 상담실을 찾아준 미혼모들, 지금은 아기없는 가정에서 귀엽게 자라고 있을 입양된 아기들, 고통중에 신앙을 권유받아 주님안에서 형제가 된 사람들,

나의 작은 봉사가 도움이 된 것 만으로도 주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오히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부끄러워진다. 여러 가지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야 함을 느낀다.

봉헌의 삶은 사랑의 삶이다.

사랑은 남을 위해 나를 온전히 내어주고 나를 비우는 희생이 따라야 한다.

남편과 아내, 며느리와 시어머니, 부모와 자식, 연인들 사이에서 서로 자기의 주장을 죽이고 상대를 위하여 살아갈 때 이세상의 불목과 아픔과 미혼모들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남을 위해 나를 접어 두는 삶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봉헌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또 다시 내게 주어진 봉헌 삶의 몫을 충실히 살아가야지 하는 다짐을 해본다.

세 광 당
금, 은, 보석, 시계
결혼예물 특별우대(상담환영)
김 윤 종(베드로)
박 명 자(마리아)
코아백화점내 1층
☎ (0652) 288-0058/ 285-3061

동서로 삼익피아노
피아노, 전자오르간, 전자악기 전문
종합악기 판매장, 전자오르간 수리
김 태 우(알폰스)
황 진 숙(안젤라)
동서관통로 다가교 입구
☎ (0652) 288-7717-8

LG 에어컨 예약
15~23% 할인 + 6개월 무이자
식당용 냉장고 파격세일
백제로 빙상경기장 건너편
원 승 연(도 밍 고)
☎ (0652) 241-2000

지역특화시범 환경농특산물(무농약)
인진재배 생산 추출액
마이산인진쑥Project
박 준 호(암브로시오)
안 순 정(라 사 라)
주문처 전화 ☎ (0655) 432-4000,2680
전주사업소 (0652) 254-2404
기술협력 : 전북 농업기술원 진안속근
약초시험장 원광대학교 의약자원 연구센터

교구소식

◈ 사회교정사목 전주 월례미사
- 때 : 6월 21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가톨릭 센터

◈ 부제품 선발 예식
- 때 : 6월 21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치명자산 성당

◈ 사회복지 지원봉사자 피정
- 때 : 6월 21일(월) 오전 10시~오후 5시
- 출발 : 오전 9시 30분 전동성당에서 출발
- 장소 : 천호성지 순례자의 집
- 지도 : 김선태 신부님
- 회비 : 3천원(점심제공)

◈ 보리피리회 감사미사
- 때 : 6월 21일(월) 오후 2시
- 장소 : 익산성모의원 수녀원성당

◈ 2000년 대희년 교구준비위원회 및 사제평의회
- 때 : 6월 22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교구청

◈ 가톨릭 미술가협회 모임
- 때 : 6월 28일(월) 오후 6시
- 장소 : 중앙성당, 월회비 - 만원

◈ 성령봉사회 은혜의 밤 철야기도
- 때 : 6월 25일(금) 오후 11시
- 장소 : 전동성당

◈ 선택 월모임
- 때 : 6월 26일(토) 오후 4시
- 장소 : 가톨릭센터 1층 회의실

◈ 초등부 신앙학교 교사연수
- 때 : 6월 26일(토)~28일(월)
- 장소 : 나바위 피정의 집

◈ 군산교도소 성가대회
- 때 : 6월 25일(토)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군산교도소 강당

◈ 신학생 하계연수
- 때 : 6월 28일(월)~7월 1일(목)
- 장소 : 수류야영장 외

◈ 천호피정의 집 피정
- 때 : 7월 1일(목)
- 주제 : 성령과 교회 공동체
- 지도 : 박중신 신부

◈ 화산동 성당 성전봉헌식
- 때 : 7월 3일(토) 오전 10시 30분
- 장소 : 화산동 신축 성당
- 주례 : 이병호(빈첸시오) 주교님

권해드립니다

다시 시작해봐

카세트 4,000원/
CD 8,000원

각곡마다 재즈, 팝, 발라드, 랩, 댄스등의 리듬으로 누구나 즐겁고 유쾌한 마음으로 함께 하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메시지가 담긴 노래

새 연 도

반포선종봉사회/ 3,000원

구성지고 아름답게 이어지는 새 연도 가락은 임종하는 이들에게 큰 위안이 되고, 세상을 떠난 이와 가족들을 기도에로 초대한다.

성 소 모 임

수 도 회	시 간	장 소	문 의
성바오로딸 수도회	매월첫째주일 오후 2시	바오로딸 서원	(0652) 252-3398
부산 성베네딕도 수녀회	매월둘째주일 오후 2시	호성동 성당 수녀원	(0652) 244-0094
샬트르 성바오로 수도회	매월둘째주일 오후 2시	창인동 성당 수녀원	(0653) 858-4724
사랑의 씨튼 수녀회	매월셋째주일 오후 3시	용머리 성당 수녀원	(0652) 281-0441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매월셋째주일 오후 2시	서학동 성당 수녀원	(0652) 284-2276
동정성모회(전주, 이리)	매월셋째주일 오후 2시	평화동 성당 수녀원	(0652) 232-5004
살레시오 여자수도회	매월셋째주일 오후 2시	연지동 성당 수녀원	(0681) 533-2578
예수 성심 전교 수녀회	매월셋째주일 오후 3시	삼천동 성당 수녀원	(0652) 226-3487
전교 가르멜 수녀회	매월셋째주일 오후 2시	서신동 성당 수녀원	(0652) 274-9262
꼰벤뚜알프란치스꼬회	매월첫째주일 오후 2시	노송동인보성체수녀원	(02) 793-2070
인보성체 수도회	매월넷째주일 오후 2시	중노송동 본원	(0652) 284-3231
살레시오 수도회(남자)	매월셋째주일 오후 2시	노송동인보성체수녀원	(062) 512-0332

'99 살레시오 여름신앙학교
주제 : 마리아의 여정(루가1, 47)
기간 : 7월 22일~8월15일 (2박 3일씩)
회비 : 34,000원, 2박 6식(간식비 제외)
접수 : 선착순 마감
문의 : 대전 살레시오 교육회관
☎ (042) 584-0654 남영미 수녀

간 병
병원, 가정 환자 돌봐드립니다
전북대 사회교육원 간병사협회
회장 안 인 순(요안나)
☎ 휴) 017-658-2690
017-654-5779
호) 015-6611-8969

혼수이불, 한복전문점
삼정혼수프라자
직영솜공장에서 헌솜을 새솜같이 개조해 드립니다.
소 병 을(루 가)
최 영 자(루시아)
송천동 서호 1차 아파트 입구
☎ (0652) 274-3983/3943

서도프라자 확장이전
코아삼익피아노
피아노, 교회용 전자올겐(면세)
디지틀피아노, 키보드
일반악기 도소매
효자동 서도프라자 2층
양 노 섭 (하상 바오로)
☎ 225-5252. Fax 223-5332

사랑과 생명 그리고 추억이 숨쉬는 공간
남원자연휴양림
26평형 콘도형 주택, 산림욕장, 등산로
400여명 수용가능한 캠프파이어장
운동장, 식당, 매점, 노래방
유 동 근(분 도)
김 은 숙(아가다) M.E 76차
☎ (0671)635-8846~8/FAX 635-8849

디스크 요통 치료기
서울 백병원 인제병원 2년 임상실험 결과 착용후 3일이내 82%이상 호전
기존 허리벨트와는 전혀 다른 정형용 견인장치 「디스크 닥터」
김 종 진(스테파노)
다가동 복자성당 옆
창의 메디칼 ☎ (0652) 282-1610~1

■ 북전주지구 본당소식 ■

덕 진

주임신부 272-5303 사 무 실 272-5302 주임신부 박 찬 길
보좌신부 252-0383 수 녀 원 272-5304 보좌신부 김 형 수
F A X 271-1937 유 치 원 252-0384 사목회장 이 동 우

⊙ 주일미사에 정성껏 참례합시다
⊙ 오늘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1. 금주 모임 : ① 성모회, 작은 형제회, 대건회 - 교중미사 후
② 구역(반)장회의 - 24일(목) 전 11시
③ 공동참회예절 - 24일(목) 저녁미사 중
④ 병자봉성체 - 25일(금) 후 2시
2. 축! 영명 : 김형수(바오로)신부님의 영육간 건강을 위하여 많은 기도 바랍니다. 축하식 - 다음주(27일) 교중미사 후
3. 다음 주일은 교황주일이며 2차헌금이 있습니다
4. 연중봉헌금(교무금) 분납에 관심을 갖으시고 실시합시다
5. 7월 영세예정자 집중교리 : 28일(월)부터 후 8시
6. 금주 전례 : 해설 - 정영식, 독서 - 이정문, 박성례, 봉헌 - 덕진 25반
7. 차주 전례 : 해설 - 오효성, 독서 - 김진오, 허옥주, 봉헌 - 덕진 26반
8. 금주 청소 : 26일(토) 후 2시, 대건회, 황금의 궁전 Pr.
9. 차주 청소 : 7월 3일(토) 후 2시, 진복회, 은총의 어머니 Pr.

☐ 지난주 봉헌금 : 1,810,230원 ☐ 교무금 : 4,757,000원

동 산

주임신부 212-3232 사 무 실 212-3231 주임신부 김 진 화
F A X 212-3722 수 녀 원 212-3233 사목회장 최 승 호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 대희년 맞이 묵주기도 1억단 바치기 : 전신자 하루 1단 12월 20일까지 ※ 개인 묵주기도 카드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 오늘은 좀도리쌀 모으는 날 : 교육관 앞 좀도리통

1. 오늘 모임 : 빈첸시오, 중.고 자모회 - 공식미사 후
2. 주간 모임 : ① 모이세회 - 21일(월) 후 8시
② 초등부 자모회 - 26일(토) 후 2시
3. 차주 모임 :
① 제대회, 애령회, 사제양성후원회, 구역장회의 - 공식미사 후
② 청년회 - 저녁미사 후
4. 병자 봉성체 : 24일(금) 미리 사무실에 신청 바람
5. 청소 안내 : 금주 - 정의의 거울 Pr., 차주 - 구세주의 모친 Pr.
6. 금주 전례 : 해설 - 박병익, 독서 - 유종석, 최미선
봉헌 - 이근영, 황승희
7. 차주 전례 : 해설 - 안한운, 독서 - 이한수, 이연남
봉헌 - 이동열, 이봉순

☐ 지난주 봉헌금 : 1,405,210원 ☐ 교무금 : 1,320,000원

삼 례

주임신부 291-8469 사 무 실 291-2018 주임신부 김 순 태
F A X 291-2018 수 녀 원 291-3196 사목회장 강 영 만

1. 금주 모임 : ① 안나회 - 공식미사 후
② 프란치스코회 - 후 2시
2. 차주 모임 : ① 사목회 - 공식미사 후
② 애령회, 울뜨레야 - 공식미사 후
③ 승리의 여왕, 샛별 꾸리아 - 후 8시
④ 성체회 - 금요일 미사 후
3. 매월 넷째주는 교무금 납부 주일입니다
4. 감사 헌금 : 강정순(사라) 10만, 손은숙 1만 ※ 감사합니다
5. 차주 청소 : 상서신, 하서신
6. 금주 전례 : 해설특전 - 김세연, 공식 - 최숙경
독서특전 - 이광일, 문숙자, 공식 - 박종선, 윤천수
제물봉헌 - 서승환 부부
7. 차주 전례 : 해설특전 - 이원규, 공식 - 최동열
독서특전 - 신재삼, 이종순, 공식 - 이재구, 김순주
제물봉헌 - 김근택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801,450원 ☐ 교무금 : 365,000원

송천1동

주임신부 254-2778 사 무 실 254-2777 주임신부 박 대 덕 사목회장 이 진 호

1. 오늘은 본당 성소후원회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 주일입니다
2. 차주 모임 : 요셉회 - 27일 공식미사 후
3. 21일(월)은 안젤라회 봉사일입니다
4. 7월부터 금요일 낮시간 예비신자교리를 새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 7월 4일 입교식 예정 ※ 6월말까지 예비신자를 인도합시다 입교신청서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5. 비품비 : 김명순 자매님 10만원 ※ 감사합니다
6. 전입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① 현대 4차 아파트 - 서윤나(모데스타)
② 태화송림타워 - 유우경(요셉)가족
③ 주공아파트 - 김성학(안토니오), 김동임(아녜스)
7. 각 구역에서는 전입자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비신자 인도와 쉬는 자 권면에 최선을 다 합시다
8. 전당리 공소미사가 23일(수) 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9. 금주 전례 : 현창호(바오로)
10. 차주 전례 : 배관철(알로이시오)
11. 금주 청소 : 5구역(신일A 102, 104동) 토요일 10시

이주일의 생활말씀 외우고 실천하기
"너희중에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모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든 다 들어주실 것이다(마태 18, 19)."
※ 실천사항 - 구역(반)모임에 참석하기

☐ 지난주 봉헌금 : 1,094,710원 ☐ 교무금 : 350,000원

상삼례

주임신부 291-0790 사 무 실 291-0832 주임신부 한 병 헌
수 녀 원 291-0833 유치원(익산공소)291-1520 사목회장 이 재 갑

⊙ 생활말씀 : 너희중의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모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든 다 들어 주실 것이다

1. 성전신축기금 : 익명 1천만원, 월계 - 1천만원, 누계 - 469,642,294원
2. 울뜨레야 단합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3. 이번주일 성전신축을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4. 차주 모임 : 꾸리아 월례회
5. 다음주일은 교황주일 2차헌금이 있습니다
6. 감사 헌금 : 민순배 2만, 조경(베로니카) 10만원
김동진(다니엘) 공중전화
7. 금주 전례 : 해설 - 강신준, 저녁 - 이미란
독서 - 소병길, 최종길, 김미진
제물봉헌 - 이창로 부부
8. 차주 전례 : 해설 - 이상섭, 저녁 - 이석
독서 - 최준영, 정중근, 송순례
제물봉헌 - 강신일 부부
9. 성당 청소 : 26일(토) 갈바리아 성모, 여왕이신 마리아

☐ 지난주 봉헌금 : 659,900원 ☐ 교무금 : 660,000원

송천동

주임신부 254-8560 사 무 실 274-1004 주임신부 한 기 호
보좌신부 254-8561 수 녀 원 254-1142 보좌신부 유 진 영
F A X 274-1004 사목회장 장 춘 식

⊙ 축! 영명 한기호(세자요한) 본당 신부님 영명축일 축하합니다 : 영육간에 항상 건강하세요. 축하식 후 전신자 나눔 잔치가 있으니 참석 바랍니다
⊙ 성전 보수공사가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을 바칩시다(1구좌 5만원) : 이정조 6, 김상곤, 김은식(추가), 이해익 송상섭 4, 문광재, 임무자, 유길자, 노순이, 김해철, 최규조, 김순례 청년성가대, 임춘자, 유중희, 각 1구좌 ※ 감사합니다

1. 제대회 : 22일 전 10시 2. 가정 사목방문 : 21구역 - 22일 후 2시 22구역 - 24일 후 2시, 23구역 - 25일 후 2시
3. 다음 주 공식미사 후 보좌신부님 영명 축하식이 있습니다 신부님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4. 병자 봉성체 : 23일 후 2시, 22일까지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5. 교구장 사목방문 준비 본당 대청소 : 23일 전 10시 ※ 레지오 단원들께서는 협조바랍니다. 치명자의 모후 꾸리아 - 성당내부, 성가대 - 지하실, 순교자의 모후 - 마당, 화단, 주변정리 천주의 모친 - 지하회의실(사무실쪽), 화장실, 소성당 2층
6. 다음 주일은 교황주일 2차 헌금 있습니다
7. 금주 본당청소 : 19구역, 22구역 - 26일 전 10시
8. 금주 전례 : 해설 - 최용성, 독서, 봉헌 - 21구역
9. 차주 전례 : 해설 - 손춘식, 독서, 봉헌 - 22구역

☐ 지난주 봉헌금 : 1,419,210원 ☐ 교무금 : 1,497,000원

숲정이

주임신부 276-1320 사 무 실 252-7366 주임신부 김 병 환
보좌신부 252-1606 수 녀 원 252-9567 보좌신부 정 신 수
F A X 252-7366 사목회장 김 인 선

⊙ 성령 묵상회 : 28일(월)~7월 3일(토)
※ 신청서를 사무실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지 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 497명 버스 11대
※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 금주 모임 : ① 구세주의 모후, 능하신 동정녀 Cu. - 공식미사 후
② 청년연합회 - 저녁미사 후
2. 차주 모임 : 요한회, M.E 모임 - 공식미사 후
3. 구역분과 월례회 : 24일(목) 전 10시
4. 병자 봉성체 : 23일(수) ※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감사 헌금 : 조문영(사무엘) 10만, 익명 5만원
6. 수녀원 건물 구입 헌금 : 익명(5만) 계 - 36,366,500원
※ 주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모두가 다 참여합시다
7. 축! 혼배 : 27일(주일) 낮 12시
신랑 - 서종길(루치아노), 신부 - 윤수요(유스티나)
8. 다음주 본당청소 : 6구역 29반 9. 미사 안내 : 은총의 모후 Pr.
10. 금주 전례 : 해설 - 김문숙(보나), 독서 - 심연무, 소인순
11. 차주 전례 : 해설 - 황덕구(아오스딩), 독서 - 김종윤, 최인자

☐ 지난주 봉헌금 : 1,550,750원 ☐ 교무금 : 841,000원

쉬고 있는 교우에게 숲정이를 보냅시다.